

전망정원부터 곤돌라까지... 휴식·문화 흐르는 한강 만든다

오세훈 시장 '그레이트 한강' 계획
"침체 끊기 위해 투자 미룰 수 없어"
놀빛광장 등 조망명소 만들기로

제2세종문화회관·문화마당 설치
한강-공원 걷기 좋은 초록길 조성

한강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시민의 여가문화 생활 중심지로 다시 태어난다. 한강 곳곳에 문화예술이 결합된 마리나 등 수상 레저시설과 런던 도시 전경을 360도로 볼 수 있는 전망대인 스카이가든처럼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정원이 들어선다. 한강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수상 산책로와 곤돌라도 생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를 끊어내기 위해서 도시 경쟁력에 대한 투자를 미룰 수 없다"면서 "오히려 지금이 바로 서울을 글로벌 매력도시로 도약시킬 적기이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한강에 전망가든, 놀빛광장 같은 조망 명소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전망정원은 민간개발시 확보한



새단장 후 노들섬 모습과 곤돌라 예시.



/서울시

공공기여분을 통해 조성하고, 놀빛광장은 생태 경관이 우수한 한강지천합류부에 만들어 시민들이 조망을 즐기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시민공모를 통해 발굴한 노을명소들은 공공 건축가를 투입해 노을 특화 명소로 가꿔 나갈 방침이다.

한강 중심의 문화 예술이 꽃필 수 있게 여의도공원에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면에는 서울 문화마당을 설치한다. 또 시는 한강의 수상·수변을 활용한 야외 스포츠·레저 교실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국제수영대회, 트라이애슬론 같은 국제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한강을 스포츠의 메카로 브랜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누구나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강과 도시공원을 나무

가 무성한 초록길로 잇고, 수상활동 거점이 될 마리나를 권역별로 조성한다. 서울항을 만들고 서해벚길을 단계적으로 활성화시켜 여의도선착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의도를 서해연안부터 동북아까지 아우르는 국제수상관광의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서울항은 터미널 기능 외에도 여의도 국제 금융 중심지의 마이스 산업과 연계해 도심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이외에 난지한강공원 인근 서울수상레포츠센터를 연내 준공하고, 잠실 및 이촌 마리나는 2025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한강변을 개발할 때 한강과 바로 연결되는 입체 보행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행로

와 보행데크도 조성해 시민들이 한강위를 산책하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아울러 시는 강남북 간 대중교통 연결이 필요한 주요 거점과 관광명소에 곤돌라를 설치해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색다른 이동경험을 제공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독심에서부터 잠실 단천쪽으로 곤돌라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을 많이 제안해 주고 있다"면서 "해당 거리가 1.6km 내외이고 곤돌라가 움직이는 속도가 초속 4~5m다. 하루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인원을 2000명 내외로 보는데 이 정도 규모가 신고통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느냐는 고민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는 규제완화를 적용해 서울

주요 도심을 한강과 연계, 저성장시대의 도시 활력을 한강 중심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한강변 핵심 거점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설정하고 한강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을 복합 활용한다. 이를 위해 용도구역이나 높이제한 등 규제를 최소화해 민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활력 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도록 돕는다는 복안이다.

단조롭고 사유화된 한강변 주거지역을 혁신, 도시의 표정을 바꾸기 위해 시는 한강변의 약 76%에 이르는 주거지역도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아파트 단지과 한강을 녹색 보행동선으로 연결하고 저층부에 상업·업무 등 복합용도를 유도해 한강변 도시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 35층 이하, 한강변 주동 15층 등 경직된 규제를 과감히 없애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이뤄질 변화와 활력은 한강에서 끝나지 않는다"면서 "4개 수계로부터 소하천까지 확산, 332km의 지천변을 활용해 서울 전역에서 시민들이 수변 라이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를 방문해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현대차, 올 185만대 생산 108만대 수출 목표

尹 대통령, 울산공장 방문

현대자동차가 올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내에서 최대 생산 및 수출에 나선다.

현대차는 9일 울산공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사 현황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울산 석유화학복합시설 기공식과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한 후 현대차 울산공장을 찾아 자동차 수출 선적부두와 울산5공장 제네시스 생산 라인 등을 둘러봤다.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에서 여러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생산은 6.9% 증가한 173만2317대, 수출은 9.9% 증가한 100만9025대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국내에서 총 185만대를 생산해 108만대를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 발생 원년인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생산은 14.3%, 수출은 28.7% 늘어난 수치다.

/양성운 기자 ysw@

은행권, 자산관리 등 '비이자이익'에 사활

5대 금융지주 작년 이자이익 49조
비이자이익 9.4조... 영업익의 16%
금융당국도 WM 영업확대 등 독려

그동안 이자이익에 치중했던 은행권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확대를 독려한 데 이어 자산관리(WM) 영업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은행들이 WM 서비스를 돌고구로 삼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가계·기업대출 감소세까지 이어지면서 은행권이 비이자이익 확대에 골몰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50조원에 육박한 반면 비이자이익은 10조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이자이익은 49조2298억원으로 전년(41조5609억원) 대비 18.4% 증가했다. 반면 5대 금융지주의 비이자이익은 9조3876억원으로 총 영업이익(57조8364억원)의 1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6대 과제 가운데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포함시켰다. 비금융업 허용, 해외진출로 높은 이자이익 의존도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은행권의 WM 영업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했다.



4대금융 본사 전경.

/각사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영업전략의 돌파구 중 하나로 비이자이익을 꼽으며 WM영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초개인화 인공지능(AI) 자산관리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예·적금은 물론 펀드와 신탁 등 고객들의 자산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다. 프라이빗뱅크(PB) 영업점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모바일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고객들의 투자 성향과 자산 규모 등에 따라 AI 알고리즘이 어떤 자산을 어떤 비중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분석 및 관리해준다.

우리은행도 프라이빗뱅크(PB) 양성 체계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WM 특화 채널을 기반으로 한 고객자산 관리 등을 통해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기업 오너 자산 관리 등 전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기업 오너 자산관리 등 전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는 증가하는 디지털 금융 수요에 맞춰 비대면 전담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WON 컨

시어지 소호영업부'와 'WON 컨시어지 WM영업부'를 신설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개인그룹과 WM그룹을 통합한 개인·WM그룹을 신설했다. 고객들의 생애 주기별 고객 관리 연계에 집중할 방침이다.

농협금융은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 6개 계열사를 망라한 자산관리 전문가 단체 'NH WM 마스터즈' 2기를 선발했다.

IBK기업은행도 비이자이익 확보에 돌입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취임 첫해 디지털뱅크를 통해 25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디지털 전환을 올해 기업은행의 핵심 사업 방향으로 삼고 비이자이익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들이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다만, 올해까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으로 비이자이익 부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